

다니엘서 - 번호 백육십구

예언의 실타래 풀기: 다니엘서에서 "요새"의 상징성 이해

Jeff Pippenger

2024-03-31

다니엘 11장 10절은 "요새"라는 단어를 통하여 내적 기별과 외적 기별을 함께 묶어 준다. 그것이 이사야의 65년 예언과 맺는 연결은 외적 예언의 "요새"를 러시아로 밝혀 주며, 또한 동일한 역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일으키시는 성전의 내적 "요새"를 밝혀 준다. 31절에 나오는 외적 요새, 곧 "힘의 성소"로 확인되는 그것은 지상의 왕 혹은 왕국을 표상한다. 내적 요새, 곧 내적 힘의 성소는 언약의 사자께서 46년 동안 일으키시는 성전이다.

그 성전(성채)의 지성소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앉아 계신다.

다니엘서에는 둘 다 "성소"로 번역되는 두 개의 히브리어가 있다. 하나는 "미크다쉬"(miqdash)이고, 다른 하나는 "코데쉬"(qodesh)이다. "미크다쉬"는 이교의 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킬 수도 있으며, 심지어 요새를 뜻할 수도 있다. 반면 "코데쉬"(qodesh)는 성경에서 오직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데만 사용된다. 다니엘 11장 31절에 나오는 힘의(요새의) "성소"(miqdash)는 "힘의 성소"로 번역되는데, 거기서 성소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미크다쉬"이며, 이것은 이교 로마와 교황권 로마의 역사 모두에서 로마의 힘을 상징하는 표상인 로마 성을 나타낸다. 다니엘은 이 두 히브리어를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다. 재림교의 중심 기둥이 되는 구절들에서 우리는 "성소"라는 단어를 발견한다.

그때에 내가 들으니 한 거룩한 자가 말하였고, 또 다른 거룩한 자가 말하는 그 특정한 거룩한 자에게 이르되, 매일 드리는 제사와 황폐하게 하는 범죄에 관한 이상이 어느 때까지이겠으며, 성소와 백성이 짓밟힘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심이 어느 때까지이겠느냐 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다니엘 8:13, 14.

두 절 모두에서 "the sanctuary"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qodesh"이며, 하나님의 성소를 가리키는 데에만 사용된다. 11절에서는 이교 로마, 특히 로마 시의 판테온 신전을 지칭하면서 "sanctuary"라는 단어가 나오지만, 그 구절에서의 히브리어는 "miqdash"이다.

정녕 그는 스스로 높아져 군대의 주재에게까지 이르렀고, 그로 말미암아 늘 드리는 제사가 제하여졌으며, 그의 성소의 처소가 내던져져 무너졌다. 다니엘 8:11.

다니엘서 11장 31절의 "힘의 성소"는 히브리어 "miqdash"이며, 이는 11장 7절과 10절에서 "요새"로 번역된 히브리어와 관련하여 나타난다. 7절에서는 남방 왕이 도시 로마로 곧바로 들어가 북방 왕을 포로로 잡았는데, 이는 그가 그의 요새로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10절에서는 북방 왕이 "요새"까지 "to" 올라갈 뿐이었으니, 자기 왕국과 이집트의 경계선에서 멈추었기 때문이다. 다음 절이 다루려던 것은 라피아의 경계선이다. 31절의 "힘의 성소"는 "요새"의 "miqdash"이다.

라피아의 경계선 전투는 우크라이나의 경계선 전투를 전형화한다. 그 예언적 역사는 "head"가 왕국 또는 왕, 곧 그의 힘의 요새임을 이해함으로써 인식된다. 그러나 그 예언은 내부적 진리와 외부적 진리를 다루고 있다. 외부 라인의 "sanctuary of strength"는 "miqdash" 성소로 대표되며, 내부 라인의 "sanctuary of strength"는 "qodesh" 성소로 대표된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는 14만 4천의 인침을 보여 주는 예언적 역사의 한 선을 나타낸다. 북왕국에 대한 흠어짐의 2,520년은 1798년에 끝났고, 남왕국에 대한 같은 2,520년의 선은 1844년에 끝났다. 그 두 선은 인류의 낮은 본성과 높은 본성을 대표한다. 북왕국으로 표상되는 낮은 본성은 몸이고, 높은 본성은 머리이다. 머리는 그 왕국의 수도이며 곧 왕이다. 이 예시에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이름을 두시기 위해 남왕국인 유다를 택하셨고, 그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은 참된 힘의 성소가 있는 곳이며, 그 성소 안에는 머리이신 왕을 위한 보좌실이 있다.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1856년에 최종적인 인침의 진리였으며, 한 기치를 능하게 하여 그 일을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된 것이었다. 1844년부터 1863년까지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인성과 영원토록 결합하시고자 하셨으나, 인성이 반역하였다.

그분께서는 그대에 인간의 더 낮은 본성을 변화시키실 수 없으셨으니, 이는 그것이 그분의 재림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대에 그분께서는 인류의 머리를 신성의 머리와 결합하십시오으로써 인간의 더 높은 본성을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머리는 그 왕국의 수도였다. 머리는 곧 왕이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인성과 연합하는 그 변화를 이루실 때, 그분께서는 예루살렘 성소 지성소에서 인성과 신성 양편의 머리를 결합하신다. 그곳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와 함께 앉아 계시는 곳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리니, 나도 이기고 내 아버지와 함께 그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으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계시록 3:21, 22.

그리스도는 (라오디게아인들인) 그분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 (빌라델비아인들이 되는) 자들은 하늘에 있는 곳들에 그분과 함께 앉게 되리라고 약속하신다.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것이니,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앉히셨다. ... 또 우리를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서 함께 앉히셨다. 에베소서 1:20, 2:6.

에스겔의 두 막대기(인성과 신성)의 결합은 하나님의 능력의 성소(qodesh) 안에서 이루어지며, 바로 그대에 능력의 요새(miqlash)가, 일백사만 사천의 인치는 때 동안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에 관하여 가브리엘이 다니엘로 하여금 깨닫게 하려고 왔던 예언의 내적·외적 계보를 모두 연결하는 예언적 열쇠로 확인된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일을 밀러주의 역사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으나, 그 일은 1863년의 반역으로 좌절되었다. 그러나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역사는 여전히 그 시도된 일을 예증하는 한 계보로 남아 있다.

다니엘서 11장 10절은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적 및 외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열쇠를 담고 있으며, 그 메시지들은 2014년에 우리의 예언적 역사 속으로 들어왔다. 10절은 1989년을 지목하는데, 이는 14만4천의 개혁 운동에서 끝의 때이며, 또한 2014년을 인침의 역사에서 하나의 이정표로 인식하게 하는 열쇠도 담고 있다.

1844년 10월 22일, 언약의 사자가 그분께서 세우신 성전에 갑자기 이르렀다. 그 이정표는 2001년 9월 11일, 셋째 천사가 다시 도래하고 일곱째 나팔이 다시 울리기 시작한 일을 예표한다. 그리고 1840년부터 1844년에 이르는 역사도 또한 반복되어야 했는데, 이는 1840년 8월 11일에 내려온 그 천사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으며, 그분의 사역은 그분의 영광으로 땅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는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까지를 표상하며, 마찬가지로 1844년부터 1863년까지도 2001년 9월 11일부터 곧 다가올 일요일 법까지를 표상한다. 화잇 자매는 1844년의 역사를 십자가의 역사와 일치시키는데, 십자가는 각각 서로 일치하는 세 때 반의 두 역사를 가르치는 분할을 나타낸다. 십자가는 1840년에 시작하여 1844년에 끝나는 그에 앞선 역사와, 그 이후 1863년에 이르는 역사가 서로 평행한 두 역사이며, 둘 다 인침의 기간을 표상한다는 사실을 확증한다.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첫 번째 선은 빌라델비아 재림교인들의 승리를 대표하고,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다른 선은 라오디게아 재림교인들의 실패를 대표한다. 두 부류는 다니엘서 10장에 모두 나타나 있는데, 십사만 사천이 인침을 받는 때에 승리하는 슬기로운 처녀들을 대표하는 다니엘은 그 환상을 보았으나,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은 그 환상 때문에 도망하였다.

첫째 달 이십사일에 내가 큰 강, 곧 히데겔 강 가에 있을 때, 내가 눈을 들어 보니, 보라, 베옷을 입고 우바스의 정금으로 허리에 띠를 띤 어떤 사람이 있더라. 그의 몸은 황옥과 같고 얼굴은 번개 같은 모양이며 눈은 불의 횃불 같고 팔과 발은 광택 나는 놋과 같은 빛이요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나 다니엘만이 그 환상을 보았나니, 나와 함께 있던 사람들은 그 환상을 보지 못하였으나 큰 떨림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도망하여 숨었더라. 다니엘 10:4-7.

다니엘서 7장에서 다니엘이 맹수들의 환상을 본 후에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설명해 주려고 왔다.

나 다니엘은 내 몸 속에서 내 영이 근심하였고, 머리 속의 환상들이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다가가 이 모든 것의 진상을 물었다. 그러자 그가 내게 말해 주어 그 일들의 해석을 알게 하였다. 다니엘 7:15, 16.

다니엘서 8장에서 다니엘이 성소의 짐승들의 환상을 본 후,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설명하러 왔다.

나, 곧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이가 서 있었다. 또 내가 올라이 강 양쪽 강둑 사이에서 사람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가 불러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다니엘 8:15, 16.

다니엘서 9장에서 다니엘이 예레미야가 밝힌 연수로서 모세의 글에서는 저주이자 하나님의 맹세로 기록된 그 연수를 깨달은 뒤, 가브리엘이 그 환상을 설명하러 왔다.

내가 말하며 기도하고, 나의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참으로 내가 기도로 말하고 있을 때, 처음에 환상에서 보았던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와 저녁 제사를 드릴 즈음에 내게 다가와 나를 만졌다. 그가 내게 깨닫게 하며 말하여 이르되,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네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느니라. 다니엘 9:20-22.

그러므로 모두 다니엘서에서 나온 세 증인의 증언에 근거하여, 가브리엘이 10장에서 다니엘에게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닥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자신이 왔다고 말할 때, 가브리엘은 다니엘이 보았고 다른 무리는 도망쳤던 여성형 '마라'라는 사역적 환상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내가 왔노니 네 백성이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환상이 아직도 많은 날 후의 일임이라. 다니엘 10:14.

신자들을 갈라놓았던 다니엘의 이상은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이천삼백 년의 이상이었으나, 그것은 그 이상을 여성적으로 표현한 것이었다. 언약의 사자로서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나타나시는 이상에 대한 이해가 다니엘(그리고 다니엘로 대표되는 이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켰다. "말세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할 일"은 1840년부터 1844년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 그리고 1844년부터 1863년까지의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 의해 대표된다. 한 부류는 반역하여 그 이상을 피해 도망치고, 다른 부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라 지성소로 들어가 하늘에서 그와 함께 앉게 된다.

그러나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세 백성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환상을 해석할 때, 그는 세상의 외적 역사를 제시한다. 다니엘이 본 그리스도의 환상은 가브리엘에 의해 14만 4천이 인쳐지는 때의 외적 역사로 해석되었다. 가브리엘의 해석에서 2001년 9월 11일의 역사에 이르면, 16절의 일요일법령에 앞선 역사로 강조되는 역사는 10절의 '요새'로 표현된 이해의 열쇠를 통해서만 인식된다. 2001년 9월 11일에 모든 환상의 결과가 바퀴 속의 바퀴처럼 전개되기 시작했다.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너희가 이르기를 '날들이 길어지고 모든 환상이 실패한다' 하는 그 속담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여, 다시는 이스라엘에서 속담으로 쓰지 못하게 하리라. 오히려 그들에게 말하라. '날들이 가까이 왔고, 모든 환상의 성취가 가깝다.' 이스라엘 집 가운데 더 이상 헛된 환상도 야심하는 점술도 있지 아니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면, 내가 말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지체되지 아니하리니, 패역한 집아, 너희 날에 내가 그 말씀을 하고 그것을 이루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또 여호와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보라, 이스라엘 집의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가 보는 환상은 오랜 날 후의 일이고, 그는 먼 때에 대하여 예언한다' 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 모든 말씀이 다시는 지체되지 아니하고, 내가 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에스겔 12:21-28.

그 역사 속에서, 다른 예언의 바퀴들 속에서 또 다른 예언의 바퀴들이 돌아가고 있는 모든 바퀴들 가운데서, 영감으로 말미암아 말세의 예언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진 바,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할 그 한 바퀴가 있다. 줄에 줄을 더하듯, 그 바퀴는 또한 다니엘이 보았고 그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킨 그 환상이어야 한다. 이는 그 환상이 마지막 날들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무엇이 닥칠지를 밝혀 주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분명히 보여 주신 바에 따르면, 짐승의 우상은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전에 세워질 것이다. 이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시금석이 되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의 입장은 모순이 뒤얽힌 혼란 그 자체이므로, 그로 말미암아 미혹될 자는 극히 적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주제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다. [요한계시록 13:11-17 인용.]”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인침을 받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할 시험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위조된 안식일 받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대한 충성을 입증한 모든 사람은 주 하나님 여호와와 기치 아래 서게 될 것이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기원한 진리를 버리고 일요일 안식일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이다.” Manuscript Releases, volume 15, 15.

짐승의 우상의 시험으로 지목되는 시험은 두 측면을 지닌다. 그것은 예언을 연구하는 자에게 일요일 법에 앞서 미국에서 교회와 국가의 결합인 짐승의 우상의 형성이 전개되는 과정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는 시험이다. 또한 그것은 다니엘로 표상되거나 도피한 자들로 표상되는 사람들 안에 짐승의 우상 혹은 그리스도의 형상 가운데 하나를 형성해 내는 시험이기도 하다. 분리는 그 처녀들이 다니엘이 그러하였듯이 “이 큰 이상을 보는지,” 아니면 그 이상으로부터 도피하는지에 근거한다. 그 큰 이상을 보는 열쇠는 “요새”라는 단어로 표상된다.

우리는 다음 글에서 이 연구를 계속할 것이다.

요한에게 지시하신 그 능하신 천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셨다. 그가 오른발을 바다에, 왼발을 육지 위에 두신 것은 사탄과의 위대한 대쟁투가 마무리되는 장면에서 그분이 담당하시는 역할을 보여 주신다. 이러한 자세는 온 땅 위에 대한 그분의 지고한 권능과 권위를 나타낸다. 그 대쟁투는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욱 격렬하고 단호해졌으며, 어둠의 권세의 주도면밀한 활동이 절정에 이르는 결말의 장면까지 그렇게 계속될 것이다. 사탄은 악한 사람들과 연합하여,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온 세상과 교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러나 그 능하신 천사는 주의를 요구하신다. 그는 큰 음성으로 외치신다. 그는 진리에 대항하기 위해 사탄과 연합한 자들에게 그분의 음성이 지닌 권능과 권위를 보이실 것이다.

이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낸 뒤에, 작은 책과 관련하여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요한에게도 다음과 같은 명령이 주어진다: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들은 봉하여 두라.' 이것들은 장차 그 순서대로 드러나게 될 미래의 사건들과 관련되어 있다.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자기 분깃에 설 것이다. 요한은 작은 책의 봉인이 풀리는 것을 본다. 그러면 다니엘의 예언들은 세상에 전해질 첫째, 둘째, 셋째 천사의 메시지들 안에서 제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작은 책의 봉인 해제는 때와 관련된 메시지였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하나다. 하나는 예언이요 다른 하나는 계시며, 하나는 봉함된 책이요 다른 하나는 열린 책이다. 요한은 우리가 말한 비밀들을 들었으나

그것들을 기록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일곱 우레 가운데 표현된 요한에게 주어진 특별한 빛은 첫째 천사와 둘째 천사의 기별 아래에서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묘사였다.”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 성경주석』, 제7권, 971.